

풍요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

한콘진, 74억 예산 문화기술 CT R&D 연구기관 모집

문화기술 연구개발(CT R&D)지원 사업은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한 국책사업이다. 올해 총 494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정공모 및 정책 지정 신규과제에 100억원 ▲자유공모 과제에 55억원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지정공모 및 정책지정 계속과제에 339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CT R&D 지원사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21일부터 모집한다. 2019년 신규 지정공모 과제는 ▲문화콘텐츠(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3개 과제 ▲문화예술(공연, 전시, 음악·음향) 4개 과제 ▲문화융합(전통·공예, 유희, 디자인 등) 5개 과제로 구성, 총 7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사회적 약자 및 고령자를

위한 기술, 환경문제 대응 등 사회 문제해결형 과제에 주목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기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 친화 미디어아트 플랫폼 개발 등의 내용으로 1차 연도에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문화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기획·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달라진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사업 참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제 중복신청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영리기업은 본 지정과제 공모 중 1개 과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1개 과제에 복수지원이 불가하고 연구 책임자 1인당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하다.

또 문화기술 R&D 사업 수행을 통한 청년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출연금 5억 원당 1명의 신규채용이 의무화되었다.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행정기간 단축 및 조기공고 시행을 통해 1차 연도 연구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이번 공모 사업 설명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흥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다. 과제 기획에 참여한 문화기술 PD가 공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2월 13일 오후 4시까지 한콘진 연구개발 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자유공모(단비) 사업'은 1월 말에 공고될 예정이다. /뉴스

여성 만학도들의 미술작품이 한자리에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내달 1일까지 '학생미술 작품전' 개최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이영희)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미술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가족과 떠난 여행지에서 느꼈던 추억을 담은 풍경화, 정물화 등 사생대회 중·고등부 수상작품 22점과 고령의 학생들이지만 힘든 학교생활에도 정성을 다해 그려낸 수채화반 동아리 작품 24점 총 46점을 선보이며 청사를 찾는 내방객 및 도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 첫 날인 1월 21일에는 '학생미술 작품전' 개막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재학생 및 동문, 자원봉사교사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관계

자 측사, 테이프 커팅식, 전시 라운딩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이번 전시 작품들은 학생들이 만학의 기쁨 속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려낸 작품들로 바쁘시지만 오셔서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의 시기를 놓친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린생각·새로운 꿈·변화하는 여성'이라는 교훈아래 1998년 3월 9일 개교하였으며, 내달 8일까지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정읍시가 최근 정읍시립미술관 1층 교육실에서 김인태 부시장과 신규 위촉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읍방문의 해 맞아 문화정서 함양에 앞장

정읍시립예술단, 기본 운영계획수립 위한 열띤 토론 열려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최근 정읍시립미술관 1층 교육실에서 김인태 부시장과 신규 위촉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2019년도 시립예술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이하 기본계획)과 예술단 운영 발전방안에 대해 예술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기본계획에 대한 소개,

예술단 운영 발전방안,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예술단 결원인원 충원과 예술단 지도부 지위 개선, 합창단 연습실 이전 확보, 정읍시예술회관 공연장 시설보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는 이번에 수립된 의견은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술단 종합발전 대책을 강구할 방침으로 향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예술인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립예술단은 시립국악단,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상설공연, 수시공연, 특별기획공연 등 다양한 공연 기획을 통해 120여 차례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예술단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정읍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성공적인 방문객 유치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스토리가 있는 좋은 작품으로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군민 화합의 장'

부안군, 내달 1일 부안예술회관서 군민과 함께하는 설명절 특별기획공연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2월 1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19년 설명절 특별기획공연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2019년 신년음악회는 새해를 맞아 군민들의 새해소망과 염원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하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한 군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연의 사회자는 부안출신 개그맨 김종하가 맡았고, 출연자는 부안출신 가수 '무조건'의 태민, '사랑아'의 하태웅, '하나뿐인 내사랑'의 김종석, '아모레'의 최소연이 출연하고, 또한 '여기서'의 가수 서지오, '엘리베이터'의 임영웅, '박헌반'의 박해신과 이카투스 댄스팀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설명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설명절을 찾아주시는 귀향객과 많은 군민들이 특별공연에 오셔서 흥겨운 시간을 가지시도록 2019년 신년음악회를 전석무료로 진행 한다"고 밝혔다.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본



공연은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나, 공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